

제목

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홍콩 IB의 평가

- 홍콩 IB들은 당행의 11.30일 기준금리 25bp 인상(1.25% → 1.50%)에 대하여 대체로 시장 예상과 부합하게 한국은행이 완만하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였다고 평가
 - 그동안의 금통위 통화정책 의결문 및 의사록, 총재님 발언, 예상보다 강한 경제성장세,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견해
 - 또한 금번 금리인상은 아시아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것이었음에도 대부분 온건하거나(dovish) 중립적인(neutral) 조치였다고 평가
 - 일부 IB는 금통위 의결문상의 긍정적 경제전망에 비추어 다소 때파적(hawkish stance)이었다는 의견(Goldman Sachs)
 - 일부에서는 물가안정 목적이라기보다 성장세가 강할 때 통화정책 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(ANZ)
- 향후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
 - HSBC: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이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, 변동금리부가 여전히 전체의 2/3를 차지하는 가계부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속도가 완만하고 인상폭도 작을(slow and shallow) 것으로 예상(기준금리 전망: 2018.4/4분기 +25bp)

- **Nomura:**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 않은 점, 수출과 고용의 단절로 인한 고용부진(slack in the labour market), 주택시장과 열진정국면 진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완만할(gradual) 전망(기준금리 전망: 2018년 하반기 +25bp)
- **Natixis:** 한국경제가 글로벌 수요 강세,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사이클상 강한 상승국면에 있어 명목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(기준금리 전망: 2018년말까지 +25bp)
- **Morgan Stanley:** 향후 한국은행 금리정상화 사이클은 2018, 2019년의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,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점,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자본이동 변동성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완만할(modest) 전망(기준금리 전망: 2018.2/4분기 +25bp)
- **BOA Merrill Lynch:**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이 3%로 예상되는 점,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,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나 그 속도는 총재와 금통위의 신중한 태도(cautious approach)에 비추어 완만할 것으로 예상(기준금리 전망: 2018년 하반기 +50bp)
- **Goldman Sachs:** 금통위가 금융안정을 강조한 점,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경기사이클상 강한 상승국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중 금리를 2회 인상할 전망(기준금리 전망: 2018.2/4분기 +25bp)
- **RBC:**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완화적 기조(accommodative stance)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,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**ANZ:** 한국의 실질정책금리가 내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, 정부정책 등으로 가계부채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, 최저임금 인상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리상승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 제시(기준금리 전망: 2018.2월 +25bp)